

모양성,
그 역사 속으로!
초대합니다.



축성 563주년

모양성(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년) 외침을 막기 위해
당시 전라도와 제주도 17개현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축성한 성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자연석 성곽이다.

모양성에는 축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전설과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답성민속(놀이)로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1,684m의 성곽을 따라 도는 전통민속놀이이다.

성을 밟아 튼튼하게 하고 머리에 인 돌을 모아
유사시 활용하기 위한 선현들의 지혜에서 시작된 것으로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바퀴 돌면 사후에
극락 승천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답성놀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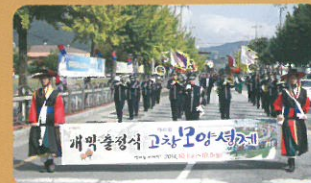


제43회 고창모양성제 주요프로그램

모양성제 거리퍼레이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로 고창읍 주요 시가지를 군악대, 취타대, 농악대를 비롯한 조선시대 원님 부임행렬과 호위 무사들, 그리고 전통복장을 입은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장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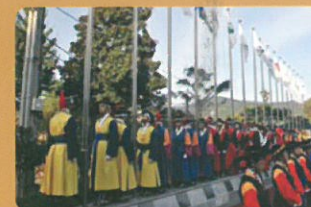
· 일 시 : 2016. 10. 5.(수) 15:00 ~ 16:10
· 구 간 : 고창군 실내체육관~터미널~모양성(고창읍성) 2km 구간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모양성(고창읍성) 축성에는 과거 호남과 제주 19개현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구간별로 쌓았는데 이러한 축성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17개 광역시·도·시·군 자치단체장이 조선시대 복장으로 참여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깃발을 게양한다.

· 일 시 : 2016. 10. 5.(수) 16:30 ~ 17:30
· 구 간 : 모양성(고창읍성) 동리국악당 앞 게양대



원님부임행차

조선시대 원님이 부임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취타대를 앞세우고 가마를 탄 원님이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모양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

· 체 형 : 2016. 10. 6.(목) 16:00 ~ 17:00
· 구 간 : 고창군다문화센터~시외버스터미널~모양성(고창읍성)

